

KIEP

## 지역경제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11년 2월 11일

ISSN 1976-0507 Vol. 5 No. 2

## 미·중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주요 내용 및 평가

나 수 업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syna@kiep.go.kr, Tel: 3460-1072)

여 지 나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jina7@kiep.go.kr, Tel: 3460-1098)

■ 2011년 1월 18~21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정상으로는 14년 만에 미국을 국빈방문(state visit)하였음.

- 양국 정상은 미·중 관계 강화, 고위급 인사 상호방문, 국제 및 지역 문제,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경제관계 구축, 기후변화와 에너지 및 환경협력, 인적교류 등 양국간 경제·안보 협력 문제에서 글로벌 이슈까지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음.

■ 이번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은 '포괄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경제관계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중국의 미국 제품 구매를 제외한 주요 의제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사항이나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포괄적 범위 내에서 기존의 협력 방향을 강화하고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침.

- 또한 통상분쟁 및 위안화 절상 등 양국간 첨예한 대립을 겪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됨.

■ 제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의는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적인 틀 속에서 조율하고 새로운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안정적인 양자 관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데 있음.

■ 향후 미국과 중국은 양국간 경제관계, 글로벌·지역 이슈 등을 둘러싸고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과 균형, 협력이 혼재된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 미·중 정상회담 개최

- 2011년 1월 18일에서 21일까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국빈방문(state visit).
- 2009년 11월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방중 이후 이루어졌으며, 1997년 장쩌민 전 국가주석 이후 14년 만에 이루어진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방문임.
- 후진타오 주석은 2006년 국빈방문보다 한 단계 낮은 공식방문(official visit)<sup>1)</sup>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한 바 있음.
-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은 2011년 1월 18~19일 양일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공동성명서(Joint statement)를 발표하였으며, 공동성명서는 6개 대주제, 41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음.
- 미·중 관계 강화, 고위급 인사 상호방문, 국제 및 지역 문제,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경제관계 구축, 기후변화와 에너지 및 환경협력, 인적교류 등 양국간 경제·안보 협력 문제에서 글로벌 이슈까지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었음.

표 1. 미·중 정상회담 41개 항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미·중 관계 강화(9)	양국의 서로에 대한 입지를 높이 평가하고 인정, 대만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 정책 확인, 군사관계, 인권문제, 우주분야 교류협력
고위급 인사 상호 방문(3)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방문 필요성, 2011년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중국 방문, 시진핑 국가부주석의 미국 방문
국제 및 지역 문제(6)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비핵화, 북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대한 우려, 이란 핵프로그램, 수단의 남북 평화분리, 아태 지역 협력참여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경제관계 구축(14)	중국 위안화 환율개혁 및 경제개발 모델 전환 촉진, 무역과 투자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협력,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타결을 위한 협력, 중국의 지적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보호 노력, 현재 진행 중인 양자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성공 노력, 미국은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s) 바스켓 포함 지지, 새천년개발목표(GDM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한 협력, G-20 체제 지지
기후변화와 에너지, 환경 협력(4)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를 위한 협력, 석유, 천연가스, 민수용 핵에너지, 풍력 및 태양열, 전기차, 에너지 효율성, 바이오 연료 등 제분야 협력 증진
인적교류 증대(1)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조치 강구

주: ( ) 안은 항목 수,

자료: 미 백악관, U.S.-China Joint Statement.

1) 외교 의전상 방문은 국빈방문, 공식방문, 실무방문(working visit), 사적방문(non-official 혹은 private visit)의 단계로 구분됨.

■ 공동성명은 ‘포괄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경제관계 구축’ 제하 14개의 경제관련 이슈를 포함하고 있어서 경제 관련 이슈가 큰 비중을 차지함.

–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의 방중 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논의된 경제협력 관련 내용이 5개 항에 그쳤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이슈가 보다 폭넓게 다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2009년 정상회담 당시는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었던 관계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환경협력 의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임.

표 2. 2009년과 2011년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 비교

	2009년 공동성명	2011년 공동성명
1	미·중 관계(12)	미·중 관계 강화(9)
2	양국 전략적 신뢰구축 및 심화(6)	고위급 인사 상호 방문(3)
3	경제협력과 국제경기 회복(5)	지역 및 국제 문제 해결(6)
4	지역 및 국제 문제(8)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경제관계 구축(14)
5	기후변화와 에너지, 환경(14)	기후변화와 에너지, 환경 협력(4)
6	–	인적교류 증대(1)

주: ( ) 안은 항목 수,

자료: 미 백악관 U.S.-China Joint Statement 2009, 2011.

## 2.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주요 내용<sup>2)</sup>

■ 이번 공동성명서의 경제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경제 관련 주요 내용

	주요내용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연방적자 감축,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환율의 과도한 변동 억제</li> <li>– 중국: 국내수요 촉진, 서비스 부문에서 민간투자 촉진,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 확대, 위안화의 환율제도 개혁과 환율 유연성 제고, 경제발전 모델의 전환 촉진</li> </ul>
자유무역과 투자 옹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주의 반대, 무역 및 투자분쟁 해결 노력</li> </ul>

2)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은 미 백악관이 발표한 U.S.-China Joint Statement에 의거하여 정리한 것임.

표 3. 계속

	주요 내용
다자협상 기제 지지	- DD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노력
IPR, 정부조달 등 분야에서 중국의 약속	- IPR 보호 노력 강화: 각급 정부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여부 감 사실시, 감사결과를 출판 - 혁신정책(innovation policy)을 정부조달의 특혜와 연관시키지 않음 - 2011년 개최될 WTO 정부조달위원회 이전에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 기관들(sub-central entities)도 포함된 2차 수정양허안을 제출
BIT 체결, 중국 MES 인정, 미국 수출통제시스템의 개혁 등	- 쌍무투자협정(BIT)의 성공적 체결을 위해 노력 - 미국은 미중공동무역위원회(JCCT: Joint Commission on Commerce and Trade) 회의를 통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 Market economy status) 인정을 위한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 - 미국의 수출통제시스템 개혁에 관한 논의 진행
양국간 상업적 교류 심화	- 국민방문 시기에 이뤄진 계약을 포함해 양국의 경제관계 심화로 인한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높이 평가
S&ED, JCCT 활용	- 전략적 경제대화(S&ED: Strategic & Economic Dialogue)와 JCCT 회의를 통한 경제관계 심화 지속
인프라 개발 협력	- 인프라 개발에서 양국 기업의 긍정적 역할 인정, 향후 협력 강화.
금융부문 협력 강화	- 금융부문의 투자와 규제에서 협력 강화, 개방적 투자환경 조성 - 미국은 정부후원기업(GSE: 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 <sup>3)</sup> 들의 자본 과 능력을 보충
위안화의 IMF SDR 바스켓 통화 추진	- 미국은 중국이 위안화를 IMF SDR 바스켓 통화로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지지
세계경제 개혁과 발전을 위한 협력	- IMF의 적법성 강화, 다자간개발은행(MDBs: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의 효율성 개선, MDGs 달성 노력 - G20 체제지지: 세계 경제 회복 강화, 과도한 불균형 감축, 경상수지 불균형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서울 G20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지

주: 음영은 양국이 각각 상대방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한 내용.

자료: 미 백악관 U.S.-China Joint Statement 2011.

-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 준비의 일환으로 총 45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제품 구매를 확정 한 것 이외에 IPR 보호 노력 강화, 정부조달 관련 양허 개방폭 확대 등을 약속함.

#### ① 45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제품 구매 및 투자계약 확정<sup>4)</sup>

- 백악관은 보잉기 200대(190억 달러 상당) 매매계약 이외에도, 중국기업이 미국 12개 주(洲)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70여 개의 계약전에 서명했고 그 금액이 250억 달러에 달 한다고 밝힘.

3) 패니매(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정부후원기업은 모기지 시장에서 시장의 형성, 활성화 및 대출증권 발행절차, 기준의 표준화, 규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들 기업은 모기지 채권을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y)을 발행함으로써 1차 시장에 대출 자금을 공급하는 기관이며, 이들은 각각 「국가주택법(National Housing Act)」과 「긴급주택금융법(Emergency Home Finance Act)」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정부의 간접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중저소득층의 자가 보유율 확대를 위한 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4) 백악관은 정상회담 직후, 'FACT SHEET: US-China Commercial Relations'를 통해 27개의 관련 거래 내역을 공개함. 자세한 내용은 <http://www.whitehouse.gov> 참고.

- 품목 면에서는 2006년의 주요 구매 품목이었던 자동차, 통신, 발전설비에서 핵발전, 풍력발전 등 청정에너지와 신에너지 위주로 변화됨.
  - 2006년 후진타오 주석의 방미 당시 구매액은 162억 1천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1년 방미 시에는 450억으로 액수 면에서 3배에 가까움.
  - 백악관 측은 이러한 거래로 미국에 23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며 환영 의사를 표현함.
- ② 각급 정부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함.
- 미 백악관은 중국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50% 줄어들면 정품 소프트웨어 판매가 40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며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약속을 환영함.
  - 중국은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 확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감사와 결과의 출판,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민간기업과 국영기업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도록 할 예정임.
- ③ 차별적 혁신정책의 폐지
- 중국은 차별적인 “자주혁신(indigenous innovation)” 기준을 철폐하고, 혁신정책과 정부조달 특혜의 연관고리를 끊을 것을 약속함.
  - 중국은 3G 통신기술 개발과정에서 차별적인 기술표준 특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으며, 중국의 3G 망 투자액은 2011년 100억~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이 연간 1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 파워그리드 개발의 경우 외국회사의 동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기술표준 구축에 외국 이해당사자들이 참가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보장할 것임.
- ④ 정부조달협약(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가입을 위한 진전된 수정양허안 제출
- 2011년 개최될 WTO 정부조달위원회 이전에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기관들(sub-central entities)도 포함된 2차 수정양허안을 제출
  - 중국의 정부조달시장은 중앙정부만 880억 달러 이상이고, 지방정부기관은 더 큰 시장으로 추정됨.

- 미국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위안화의 IMF SDR 바스켓 통화 편입지지 등 중국의 글로벌 위상 제고를 인정해주는 내용으로 답례함.

#### ① 중국의 MES 인정 협상의 신속한 진행<sup>5)</sup>

- WTO 가입 의정서에 따르면 중국은 가입 후 15년째인 2016년부터 WTO에서 MES를 인정받게 되지만, 이 인정시기를 좀더 앞당기겠다는 계획임.
- 이는 2010년 5월 2차 미·중 S&ED<sup>6)</sup>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으로 이번 공동성명 문안에 정식으로 삽입되었고, 향후 JOCT 회의를 통해 조기 MES 인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함.

#### ② 중국 위안화를 IMF SDR 바스켓 통화로 포함시키려는 노력 지지

- 중국은 SDR 바스켓 통화가 국제무역과 금융거래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통화여야 한다고 하며, 국제화 노력의 일환으로 위안화를 SDR 바스켓 통화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3. 미·중 간 경제관계 현안

### 가. 무역 및 투자 현황

#### ■ 무역

-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상대국이며, 수입에서는 일본, 한국, 대만에 이어 4위를 기록하는 중요한 교역 상대국임.
- 2009년 기준 중국의 대미 수출입 규모는 각각 2,207억 달러와 774억 달러이며, 중국의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은 각각 18.4%, 7.7%임.
- 미국 입장에서 보면, 2009년 기준 중국은 미국의 세 번째 수출상대국이자 최대 수입상대국으로, 미국의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빠르게 상승 중임.

5) 중국은 WTO에 가입한 2001년 당시 15년 동안 MES를 유예하는 것에 동의했으나, 회원국과 협의를 통해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이후 중국은 개별국가와 접촉을 통해 MES를 부여받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 중국이 MES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경제적 동기는 MES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비시장경제로 취급받아 반덤핑 판정에서 제3국의 가격 기준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임. 이렇게 될 경우 중국처럼 저렴한 노동 인력 풀을 가진 국가가 없기 때문에 제3국의 비용도 중국 국내 가격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 중국 측에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게 됨. 한국은 2005년 중국의 MES를 인정하였음.

6) S&ED는 미·중 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글로벌 이슈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설립한 최고위급 대화 채널로서 지금까지 두 차례(2009년 7월, 2010년 5월)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2011년 5월 제3차 S&ED가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임.



- 2010년 11월까지 미국의 대중 수출은 818억 달러로 미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5.5%에서 7.0%로 상승하였으며, 미국의 대중 수입비중 역시 2008년 16.1%에서 2010년 11월까지 19.1%로 늘어남.

표 4. 미국의 대중 무역추이

(단위: 십억 달러,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수출	693	724	819	904	1,037	1,163	1,301	1,057	1,161
대중 수출	22 (3.2)	28 (3.9)	35 (4.2)	42 (4.6)	55 (5.3)	63 (5.4)	72 (5.5)	70 (6.6)	81.8 (7.0)
순위	7	6	5	4	4	3	3	3	3
총수입	1,164	1,259	1,471	1,671	1,855	1,954	2,100	1,558	1,745
대중 수입	125 (10.7)	152 (12.1)	197 (13.4)	244 (14.6)	288 (15.5)	322 (16.5)	338 (16.1)	296 (19.0)	334.1 (19.1)
순위	3	2	2	2	2	1	1	1	1

주: 1) ( ) 안은 총 수출입에서 대중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

2) 2010년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수치임.

자료: US Census Bureau.

## ■ 투자

- 양국간 직접투자 규모는 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투자 누계는 2009년 기준 494억 달러(미국의 총 해외직접투자의 1.4%)로 중국은 미국의 18번째 투자대상국임.
- 미국 대중 투자의 46%가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제조업 투자의 약 52%는 컴퓨터 및 전자제품과 화학제품이 차지함.
- 중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2009년 해외투자 통계공보에 따르면, 2009년 누계 기준 중국의 대미 투자액은 33억 달러로 미국은 중국의 6번째 투자 대상국임.

## ■ 중국의 미 국채 매입

- 2000년 603억 달러에 불과하던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2010년 9월 말 기준 8,835억 달러로 15배 가까이 증가함으로써 중국은 2008년 미 국채 최대보유국으로 부상함.<sup>7)</sup>

7)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실시해온 수출지향적 경제성장 전략에 따른 무역흑자와 적극적인 해외자본 유치 등을 통해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축적하고 이를 미 국채 매입에 투자하였는데, 지난 10년간 미 국채가 중국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40% 수준을 유지함.

- 이는 '미국=소비(수입), 중국=저축(수출)'으로 대변되는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음.
- 중국은 지속적인 생산으로 저축을 증가시켜 축적된 외환보유고를 통해 미 국채를 매입하였으며, 미국은 과잉소비에 따른 수입 수요 증가로 발생한 경상수지적자를 국채 발행을 통해 보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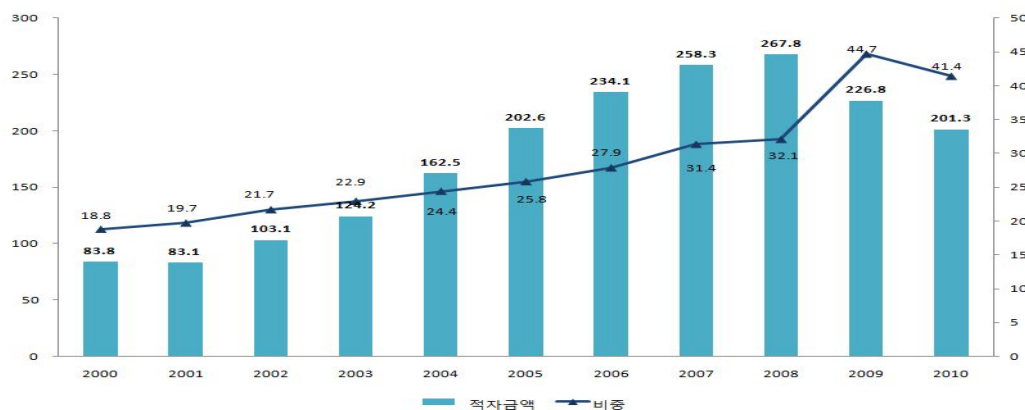
## 나. 미·중 통상분쟁

### ■ 무역 불균형 심화

-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2002년 1,000억 달러를 넘어선지 3년 만에 2005년 2,000억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급증하였으며, 중국은 2001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 대상국으로 부상함.
- 특히 2009년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 규모가 2008년에 비해 감소(8,347억 달러 → 5,069억 달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 무역적자가 전체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됨(32.1% → 44.7%).
- 2010년 들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비중은 2009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40%를 웃돌고 있음.
- 양국간 무역 불균형 심화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위안화 절상 압력 및 양국간 통상분쟁 격화의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함.

그림 1.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주: 1) 2010년 수치는 3/4분기까지 누적수치임.  
 2) 비중은 전체 적자 중 대중국 무역적자 비중임.  
 자료: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 ■ 통상분쟁 격화<sup>8)</sup>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은 상대방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양국간 통상분쟁은 더욱 격화됨.
- 특히 2009년 중 미국과 중국의 전체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조사 중 상대국에 대한 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역대 최고 수준인 65%와 55%로 급속히 증가
- 양국간 통상분쟁은 2009년 9월 발생한 타이어 분쟁을 계기로 본격 가열됨.
- 미국은 2009년 9월 11일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특별세이프가드(SSG) 조치를 발동하였으며, 중국은 WTO 제소와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로 대응함.
- 타이어 분쟁으로 가열되기 시작한 미·중 간 통상분쟁은 2009년 10월 이후 철강, 자동차, 화학 및 제지 등에 걸쳐 양국이 상대방에게 AD·CVD 관련 조치를 경쟁적으로 취하면서 더욱 확대됨.

## 다. 위안화 절상

### ■ 미국의 위안화 절상압력 가중

- 양국간 위안화 환율을 둘러싼 갈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부터 심각한 통상쟁점이었으나,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위안화 환율을 사실상 미 달러화에 대해 고정시킴에 따라 더욱 악화됨.
- 중국의 ‘위안화 환율 유연성 확대 조치’ 발표(2010. 6. 19) 이후 위안화는 12월 말까지 약 3%(1달러당 6.83위안 → 6.62위안) 절상되었으나 미국의 위안화 절상압력은 여전함.
- 특히 미 하원은 중국의 위안화 환율정책을 불공정무역 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상계관세 조치로써 제재해야 한다는 「환율조작 제재법안(Currency Exchange Rate Oversight Reform Act of 2010)」을 통과시킴(2010. 9. 24).<sup>9)</sup>

8) 미·중 간 통상분쟁 격화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KIEP(2010),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미중 경제관계』를 참고.

9) 미 의회는 2010년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하여 중국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미국정부는 아직까지 위안화 환율절상을 불공정 무역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CVD 조사를 개시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

## ■ 중국의 반발

- 미국의 위안화 환율절상 압력에 대해 중국은 글로벌 경기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급속한 위안화 절상은 자국 수출기업들이 감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음.

## 4. 평가 및 전망

- 이번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은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경제관계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할 수 있음.

- 미국은 중국에게서 4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 확정, IPR 보호 및 정부조달 분야 개선 노력 약속 등의 경제적 실리를 획득하고, 중국은 미국에게서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인정을 위한 협상 진행 및 위안화 국제화 노력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냄.

- 그러나 중국의 미국 제품 구매를 제외한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논의사항이나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보다 포괄적 범위 내에서 기존의 협력 방향을 강화하고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침.

- 또한 통상분쟁 및 위안화 절상 등 양국간 첨예한 대립을 겪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됨.

- 이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달러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을 주시하고(미국 측), 위안화 환율의 개혁 촉진 및 유연성을 증대하겠다는(중국 측) 기존의 입장만을 재확인하고, 보호주의를 반대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선언에 그침.

- 제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의는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적인 틀 속에서 조율하고 새로운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안정적인 양자 관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데 있음.

- 또한 글로벌 및 지역 이슈까지 포괄하여 논의함으로써 포스트 글로벌 금융위기 시대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동반자로서 미·중 관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함.

- 향후 미국과 중국은 양국간 경제관계, 글로벌·지역 이슈 등을 둘러싸고 서로의 이해고 있으며, 이 법안의 상원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임.

관계에 따라 갈등과 균형, 협력이 혼재된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격화된 미·중 통상분쟁은 각자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당분간 갈등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기에 해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과거 극단적인 대립 양상을 보였던 미·소 냉전시대와 달리 미·중 관계는 전반적인 협력구도를 훼손시킬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을 것인바, 이는 양국 상호간 경제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해소 및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해서도 양국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임.
- 특히 2008년부터 중국이 미 국채 최대보유국으로 미국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해 볼 때 양국간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따라 미·중 경제관계는 개별 이슈에 따라 갈등을 보이면서도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임.
-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광범위한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메커니즘에 기반을 둔 경제협력의 틀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한바, 향후 S&ED의 역할과 중요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첨단기술 및 정부조달시장의 성장과 대외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분야를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중 진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함.
- 투자확대와 외국기업 참여 기회 확대가 예상되는 3G 통신기술 및 스마트 파워그리드 개발 등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중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이 주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중국 정부조달시장의 특성과 관련 정책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임. **KIEP**